

우리가

6월 모의평가에서

남겨야 할 것들

< 화법과 작문 >

심 찬 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평가의 **중요성**은

중언부언 하지 않더라도,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문 내용을 모두 알기 때문에, 답을 외웠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은 수능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저 그런 이유들을 대면서 6월의 그 뜨거움을, 모의평가의 중요성을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매년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평가원 모의평가의 수능 반영 비중은, EBS의 그것을 넘어설 만큼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역설하지만 솔직히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들에게는 EBS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양입니다.

우리는 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실시하는 6월과 9월, 두 번의 모의평가에 주목해야만 할까요?

2014년 10월.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 20주년을 맞아, 평가원에서 만든 '**대학수학능력시험 20년사**'라는 제목의 내부 연구 자료를 보면, 6월과 9월 실시되는 두 번의 평가원 모의평가가 가진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첫째, 수능 출제·시행 측면에서의 '모의'이다.

수능에서 무리 없는 적절한 시험 난이도를 유지하고, 다수의 수험생이 치르는 시험 시행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사전 모의평가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의 모의평가를 통해 수능 출제·시행 기관인 평가원은 수험생의 수준을 파악하고, 시행의 문제점 및 개선점을 파악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자신의 현재 준비 상황을 파악하고 수능에 대한 사전 적응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모의평가이다.

모의평가는 수능 시험을 대비한 '연습' 시험이다. 시험의 출제·시행기관도 이를 통해 연습하고, 수험생들도 두 번의 모의시험을 통해 본시험을 대비 하게 된다. 수능의 적정 난이도 유지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두 번의 모의평가는 **좋은 연습**이 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20년사**」,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4)

매번 하는 뻘한 이야기들처럼 보이지만, 모의평가 시행 취지의 본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600여명의 출제·관리팀과 수험생들의 연습을 위함'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즉 출제자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평가원 모의평가에서 제시된 문제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연습한 그대로'** 그 해 수능을 출제하고 응시하도록 배려하겠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어려운 개념, 지문의 구조, 문제의 유형 등 수능 당일, 미리 경험해보지 않은 학생들은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모의평가에서 미리 보여주고, 학생들에게 연습하고 공부할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6월 2일 모의평가(실시), **9월 1일 모의평가.**

올해 수능의 가능자가 될 두 번의 모의평가 분석을 통해, 자신의 부족한·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고 실전에서 취할 문제풀이 방식과 시간 관리에 대한 자신만의 기준을 확립하시기 바랍니다.

< 6월 평가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 화법과 작문 >

① 화법

2012년 선택형 수능 시행 이전에 실시된 '5월 평가원 예비시행'에서는 화법 교과서의 이론적인 부분까지 출제를 감행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화법 교과서를 공부하도록 유도했었다

하지만 이번 6월 모의평가를 포함해 최근 2년 간 출제된 문제들의 양상을 보면, 화법의 이론보다 '담화'에서의 '말하기 방식'과 '사실적 사고(내용일치)' 등 소위 과거 '언어영역' 시절 듣기를 그대로 대본으로 옮겨 놓고 묻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시험이 되었다. (출제자들도 화법 출제에 대해 감을 많이 못 잡고 있다.)

위에서 말했듯, 최근 화법 5문제는 상당히 정형화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우선 가장 일반적인 유형은 2문제를 출제하는 '발표' 또는 '전문가와 의 대담'이다
이번 6월에서도 그랬고, 과거 기출문제에서 정말 지겹게 출제됐던 내용들이다.

'독서'와 다를 바 없기에 지문 독해만 제대로 한다면 큰 어려움이 없다.

1) 내용 일치(사실적 사고) 2) 말하기 방식'을 출제한다.

(화면의 '작품 1'을 가리키며) : 이러한 진술을 보자마자 '시각자료를 활용한다'는 말이 나와야 한다.

이어서 타이포그래피의 조형적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타이포그래피의 조형적 기능이란 글자를 재료로 삼아 구체적인 형태의 외형적 아름다움을 전달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화면의 '작품 2'를 가리키며) 이 작품은 '등'이라는 글씨의 받침 글자 '이'를 전구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받침 글자를 중심으로 양쪽에 사선을 그려 넣고 사선의 위쪽을 검은색으로 처리했어요. 이렇게 하니 마치 갓이 씌워져 있는 전등에서 나온 빛이 아래쪽을 환하게 밝히고 있는 그림처럼 보이지요. 이렇게 회화적 이미지를 첨가하면 외형적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글자가 나타내는 의미까지 시각화하여 전달할 수 있습니다.

[2017학년도 6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평가]

: 마찬가지로 '타이포그래피'에 대한 정의를 하고, 그의 '조형적 기능'에 대한 일반적 진술들이 나온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수능에서 '정의(뜻을 정하다)하는 개념은 반드시 출제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 지문에 출제될 내용은 1) '정의'하는 개념 2) '정의'한 개념의 특징과 일반 사항

이 두 가지가 사실적 사고를 묻는 문제로 출제된다. 이번 6월에는 출제되진 않았지만 기존의 '화법' 지문에서 우리가 수없이 만나본 형태의 진술들이 존재한다.
9월에도 출제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한다.

박사: (웃음) **여기를 자세히 보세요. 작품 속을 유심히 보면 책을 읽고 있는 학자의 모습도 보이지요?**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국어A]

이 문장에서 **출제할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인가?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본 학생이라면 '비언어적' 요소와 '질문을 통한 관심 환기' 정도가 아니겠는가?

> '반언어적 · 비언어적 요소' 개념 정리 할 것

박사: **국어 시간에 '용비어천가'를 배운 적이 있을 텐데요.** 만 원 권을 가리키며) 여기 세종 대왕 초상 옆에는 한글을 사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국어A]

마찬가지로 '과거 경험을 환기 시킨다'라는 말을 쓸 수 있다. (환기 = 불러일으키다)

결국 기출문제에 익숙하다면, 발화 의도와 담화 상황 정도는 가쁘히 다 맞출 수 있다는 얘기다.

'아침에 맨 정신을 가지고 화법 문제 풀이에 돌입하겠다.' 라는 굳은 결심만 있으면 완벽하다.

* ㉠ 2015학년도 6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평가 : 국어B 1번 ~ 3번

→ '담화표지'라는 단어가 처음 출제되었다. 반드시 문제를 풀어보고 학습할 것을 권한다.

㉡ 2015학년도 9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평가 : 국어A 1번 ~ 3번

→ '화법은 독서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한 문제다. 3번 문제에 집중해서 풀어볼 것

그런데 최근 '화법'에서 출제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바로 '협상, 토의, 토론'이다.

화법 교과서에서 비중 있게 다루고 있고, 대학에 진학했을 때 '토론'은 학문의 필수적 접근 방법이다.

'대학에서의 수학 능력을 측정하겠다'는 수능의 목적에 비춰볼 때, 이보다 더 좋은 출제거리가 있는가?

최초 출제 이후 평가원 내부적으로 정답률에 있어서 안정적·이상적이라는 평가가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평가원에서 올해 초 발간한,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학습방법 안내자료'를 보면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국어B, 4번 문제를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는 것이 확인 가능하다.

이 문항은 토론의 내용과 형식을 고려하여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합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론의 내용과 형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상대방의 주장이 지닌 문제점을 입증하기에 적합한 주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학생들은 토론의 일반적 절차와 특징뿐만 아니라 구체적 토론 상황에서 쟁점을 정확히 분석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이해하여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전략에 대해 학습할 필요가 있다.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대비 학습방법안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6]

평가원 스스로가 올해는 '협상·토론·토의'에 관련된 지문을 내겠다고 공언한 것과 다르 않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가원에서 제시한 항목들에 대한 학습 및 점검이 필요하다.

우선 누적된 기출문제들을 소개하고, 어떤 것이 문제화 돼서 출제되는지 파악해보도록 한다.
cf) 선택형 수능 당시 B형에만 출제된 것은, 관련 내용이 '화법과 작문 II' 교과서에 있었기 때문이다.

2014학년도 5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예비시행 : 국어B 1번 ~ 3번
2014학년도 6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평가 : 국어B 1번 ~ 3번
2014학년도 9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평가 : 국어B 1번 ~ 3번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국어B 1번 ~ 3번
2015학년도 9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평가 : 국어B 3번 ~ 5번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국어B 3번 ~ 5번
2016학년도 6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평가 : 국어B 1번 ~ 3번
2016학년도 9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평가 : 국어B 1번 ~ 3번

2017학년도 3월 서울시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 1번 ~ 3번
2017학년도 4월 경기도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 1번 ~ 3번
2017학년도 6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평가 3번 ~ 5번
2017학년도 육·해·공군 사관학교 1차 1번 ~ 3번

통합형 수능으로 전환된 이후, 첫 모의평가에서 '협상·토론·토의' 관련 내용을 여전히 출제할 수 있음을
평가원이 보여주었다. 아래에 제시하는 출제 포인트들을 점검하면서 위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한다.

토론의 주제 = '논제'

찬성 및 반대 = '논지'(주장)

근거 ㉠, ㉡, ㉢ ... = '논거'(근거)

기본적인 용어는 이렇다. **반드시 '논제'를 점검하자.** 토론은 토론 상대를 설득시키는 것 이전에 토론을
지켜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논지가 더 타당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기에 **상대의 논지가 나의 논지보다 타당하지 못함을 밝혀야 한다.**

그러면 상대의 논지를 건드려야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상대의 논지를 무력화 시키려면 **반드시 '논거'를 공격해야 한다.**

그래서 수능에 출제되는 '협상·토론·토의'는
이러한 과정을 제대로 지키면서 합리적인 비판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려 한다.

출제의 핵은 다음과 같다.

토론자 2명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부분'과 '차이를 보이는 부분'을 찾는 것이다.
20년이 넘는 수능의 역사를 보면, '이분법'이라는 단순한 논리가 수능의 기저에 깔려있는 기본 논리다.
'이분법'을 출제자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문제출제의 용이함도 있겠지만, 대학에서 학문을 접
근 하는 방식이 기본적으로 '세미나'를 통한 '토론', 즉 '이분법적 상황'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문제를 출제하는가. (이분법을 기반으로 한다)

- ㉠ 논제를 벗어나는 주장을 하지는 않는가?
- ㉡ 공통으로 인정하는 부분을 비판하고 있는가? → 양측이 모두 인정하는데 비판하면 안 됩니다!
- ㉢ 논리적 비약이나, 상대의 인신을 공격하는 태도를 취하는가?

가장 중요한 출제의 '핵'은 ㉡이다.

대개 정답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을 제대로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토론이나 토의가 진행되면, 반드시 각 토론자의 '논지'와 '논거' 그리고 비판하는 태도를 체크하자.

학생 1: 이번 모둠 과제를 하려면 먼저 「○○의 이해」를 같이
읽어야 하잖아. 내용이 많고 어려워 보이는데 시간도 많지
않아서 걱정이네.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같이 이야기해 보자.
일단 사회는 내가 볼게.

학생 2: 매주 정해진 분량을 각자 읽고 매주 한 명씩 돌아가
면서 책의 내용에 대해 발표를 한 후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이 좋겠어. 그러면 발표자는 자신이 맡은 부분의 내용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야.

학생 3: 그럴 경우 발표자 외의 다른 사람들은 책을 읽어야
하는 책임감이 덜할 수도 있어. 그래서 말인데, 자유 토의
방식은 어떨까? 구성원들 모두가 매주 정해진 분량의 책을
충분히 잘 읽어 와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거야.

학생 1: ㉠ 발표와 질의응답, ㉡ 자유 토의라는 두 가지 방안이
나왔네. 그럼 어느 방안이 좋을지 말해 보자.

학생 4: 발표와 질의응답 방식으로 하면 책을 깊이 이해할 수
있어. 친구들이 우리 눈높이에서 설명을 해 주니까 이해도
쉬울 거고, 모르는 부분이 있어도 서로 부담 없이 질문으로
해결할 수 있잖아.

학생 5: 그런데 발표자가 내용을 잘못 이해하면 나머지
모두가 오해를 할 위험이 있어. 자유 토의 방식은 모두
가 책을 꼼꼼히 읽고 서로 의견을 나누니까 책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지. [A]

학생 2: 하지만 모든 사람이 매주 정해진 분량의 책을 꼼꼼하게
다 읽어 와야 하는 것은 솔직히 부담이 돼.

학생 3: 나는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책을 꼼꼼히 읽고 다른
사람과 자유롭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학생 4: 하지만 자유 토의 방식은 구심점 역할을 하는 사람을
따로 정하지 않아서 토의가 활발히 진행되기가 쉽지 않아.

[2017학년도 6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평가]

위의 지문을 보고 머릿속에 다음과 같은 그림이 그려졌어야 정상이다.

> 느껴지는가? '발표와 질의응답' vs '자유토의' '이분법'의 구도가?

	A(발표자)	B(발표자)	C(발표자)
발표와 질의응답 :	B, C	A, C	A, B

(학생2, 학생4) > 발표자를 제외하고는 책을 읽지 않아도 된다.

자유 토의 :	A, B, C	A, B, C	A, B, C
---------	---------	---------	---------

(학생3, 학생5) > 모든 학생들이 책을 읽어야 한다.

공통점과 차이점이 눈에 들어오는가?

그 부분들을 반드시 출제자는 문제화 시켜 출제한다.

지문독해와 함께 위에 도해해놓은 모습이 머리에 그려지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실하게 찾아내야, 상호간의 비판의 핵심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다(출제자가 묻고 싶은 진짜 핵심)

그래서 3번 문제를 보면 철저하게 '이분법'적 구조 아래 '공통점'과 '차이점'을 질문한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③번과 ④번이다. 이 두 선택지는 '공통 인정'의 부분이기 때문이다.

메가스터디 채점서비스 기준, ③번과 ④번을 오답으로 고른 학생이 10%가 넘는다.

* 단어 공부 역시 병행해야한다.

4번 문제에서 제시한 '의의'라는 단어가 무엇인가?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 5번 이상 출제된 단어이고, 기존의 기출문제에서도 쉽 없이 나왔지만 아직도 '의의'라는 단어가 당신의 머릿속에 느낌으로만 존재하고 있지 않은가?

'의의' = 의미와 가치

이렇게 기억한다면 비문학 독해를 함에 있어, 지문독해와 문제풀이를 쉽게 할 수 있다.

지문의 내용이 똑같이 수능에 출제되지 않는다.

하지만 평가원에서 묻고자 하는 출제의 핵심과 문제의 형태, 지문 구성 방식 등은 그대로 수능에 반영되기 때문에 위 사항들을 확인하면서 제시한 기출문제들을 풀고 점검해보자.

기억하자! 화법의 최근 트렌드는 '협상·토론·토의'라는 사실을.

범교과적 소재를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의 글에 대한 독서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추론적·비판적·창의적 사고를 활용하여 풀 수 있는 문항을 중점적으로 출제하였다.

[2016년 6월 2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6월 모의평가 출제 관련 보도자료]

② 작문

국립교육평가원(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전신)에서는 수능이 실시되기 전인 '학력고사' 시절, 수능 도입을 앞두고 매년 해당년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1990년 12월부터 92년 11월까지 무려 7차례에 걸쳐 '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를 실시했다. 그 당시 문제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주관식 1

다음 밑줄 친 부분을 하나의 낱말로 바꾸어 적는다?
(3음절로 주관식 답란에 답하라.) [2점]

과거 소련의 경제 정책이라는 것은 대개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이어서 임시로 꾸려 대어 눈가림만
하고 넘어가는 식의 대책에 불과한 것이었다.

--	--	--

주관식 5

다음에 제시된 전제들로부터 타당하게 이끌어 낼 수
있는 결론과 그러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이유를
답안지 뒷면에 있는 원고지에 300자 이내로 논리
정연하게 서술하라. [4점]

[전 제]

- | |
|---|
| 가 학제로 나간다면, 그는 크게 성공할 것이다.
나 법조계로 나가더라도, 그는 성공할 것이다.
다 그는 학제로도 법조계로도 나가지 않았다. |
|---|

[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 언어영역, 국립교육평가원 1990]

본 수능에는 '주관식'이 제외됐지만, 평가원에서는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글쓰기 능력을 측정하려고 하였다**. 이유는 이렇다. 과거부터도 그랬지만 특히 개정교과 이후 '말하기'와 '글쓰기'를 바탕으로 한 '의사소통'이 교육과정상에서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음이 첫 번이고, 대학에서 '글쓰기'와 '발표와 토의'를 중요시 여기고 있음이 두 번이다.(교수님들이 요즘 학생들이 글을 못 쓴다고 많이 비판했다는 뒷이야기)

하지만 객관식 시험에서 '글쓰기'를 직접 측정할 수 없기에, 「화법과 작문」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른바 '**글쓰기 계획 5단계**'에 입각한 글쓰기를 **간접적으로 측정**하려 한다.

따라서 지금 출제되고 있는 '작문'은 과거 '쓰기영역'과 대동소이한 영역으로 철저하게 '**자료에 대한 해석**'을 묻는다. → '작문'은 신유형이 존재하지 않는다. **해석과 독해가 전부다.**

[6~7] (가)는 동생이 작성한 메모이고, (나)는 동생이 누나와 나눈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자기소개서 작성 계획을 구상한 메모

- 작문 상황: ○○ 향토 문화원 학생 해설 도우미에 지원
- 목적: 선발 담당자에게 나를 알림. ㉠
- 예상 독자 분석: 학생 해설 도우미 선발 담당자는 나의 학교생활이 궁금할 것임. ㉡
- 내용 생성
 - 나에게 가장 의미 있는 활동 경험 ㉢
 - 나의 성장 배경 ㉣
- 조직 방법: 경험의 목록을 나열하여 제시함. ㉤

6. (나)를 고려할 때, (가)의 ㉠~㉤에 대한 조정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선발 담당자에게 자신이 학생 해설 도우미로 적합함을 보이는 것으로 목적을 구체화한다.
- ② ㉡: 공고문을 토대로 예상 독자의 주된 관심사를 학생 해설 도우미로서의 요건 충족 여부로 재설정한다.
- ③ ㉢: '의미 있는 활동' 중 학생 해설 도우미로서의 자질을 보여 줄 수 있는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 ④ ㉣: 자신의 친화력을 드러낼 수 있는 소재로 성장 배경 대신 학급 내의 교우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 ⑤ ㉤: 선별된 각 경험의 내용과 그 의의를 함께 제시한다.

[2017학년도 6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평가]

올해 출제될 작문의 전형적인 형태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 역시 반드시 이렇게 출제된다. 출제자는 (가)처럼 **작문계획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제대로 글을 쓰고 있는지 확인할 것을 요구**한다. (계획에 따른 글쓰기 측정)

출제자가 직접 작문계획을 작성하고, 아래의 글을 전개해 나가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글은 **논리적으로 '통일성'과 '응집성'을 유지해야한다**. 쉽게 말해서 작문계획과 아래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이를 저해하는 내용 등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작문계획을 계속 눈으로 확인하면서 아래의 글을 읽어나가도록 한다. 읽다가 혹 작문계획에서 어긋나는 내용은 반드시 체크해야한다. 기존의 기출문제들을 확인해보면 알겠지만 출제자는 **'특이한 지점', '변주가 일어나는 지점'** 등 눈에 띄만한 것들을 주요 출제 대상으로 삼는다.

* 2000년대 중반까지의 수능에서는 '예상독자'를 두고 장난을 많이 쳤는데, 최근에는 그러지 않는다.

이번 작문의 출제경향 중 주목할 만한 것은 매년 출제되던 '조건에 따른 글쓰기'가 작문에서 출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 2017학년도 사관학교 1차 시험에서는 그대로 작문 영역에서 출제가 되었다

38. (다)를 바탕으로 <보기>에 제시된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은 ㉡ 감각과 정서를 동시에 드러내는 단어인 '따뜻하다'를 사용하여 '눈'이라는 사물의 속성을 개성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정서는 글쓴이가 ㉢ 그 사물과 함께 떠올린 기억 속의 정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와 ㉤를 모두 포함하는 짧은 글을 두 문장으로 지어 봅시다.

[2017학년도 6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평가]

작문에서 출제할 수 있는 문제가 5문제 밖에 되지 않고, 그러나 글쓰기 계획 5단계에서 '조건에 따른 글 쓰기(표현하기)'는 반드시 물어야 하고. 이런 딜레마 때문에, 이 문제를 수필과 결합시켜 출제했다.

문제를 푸는 방식은 매우 간단하다.

'조건에 따른 글쓰기'는 '정확도'보다도 '속도'가 중요하다.

즉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 조건을 통해 우선 선택지를 지우고
㉡를 통해 나머지 선택지들을 제거해 나가도록 한다.(대개 수사법으로 먼저 지워나간다)

하지만 '조건에 따른 글쓰기'가 이런 식으로 출제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58. <보기>에 따라 '이효석 문학제'를 알리는 초청장을 만들려고 한다. 문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보 기>

- [A]의 분위기를 파악하여, 그것을 작가의 작품 세계가 지닌 특징을 드러내는 데 활용한다.
- 비유를 사용하여 표현 효과를 높인다.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2005학년도 수능시험에서 현대소설 「메밀꽃 필 무렵」을 통해 이미 '조건에 따른 글쓰기'가 다른 장르와 결합하는 방식을 선보인 적 있다.

하지만 여러 문학 갈래들과 문제가 결합하든 끼어들든, 사실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
> 연습한 방법대로 그냥 풀면 된다.

연습한 방법을 그대로 적용해보자.

2005학년도 수능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유'(수사법)를 통해 1차적으로 선택지를 지워나가고 [A]의 분위기를 파악하여 2차로 선택지를 지워나가면 된다.

> [A]의 분위기를 못 잡아서 틀리는 학생들도 있었다. 연습만이 살길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런 문제는 정답을 맞추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속도'다.
때론 영리하게 문제를 푸는 지혜가 필요하다.

○ 학교 신문 편집부의 기사 요청서

우리 학교의 역사적 상징물인 소나무들이 옮겨져 미리내 숲
숲이 조성되기까지의 과정과 그 의의를 중심 내용으로 하는
특집 기사를 작성해 주세요. 예상 독자는 본교 학생들입니다.

○ 본문의 개요

- 1문단: 미리내 숲숲 개방 행사 **안내** ㉠
- 2문단: 체육관 신축으로 인한 소나무 처리 **문제 발생** ㉡
- 3문단: 소나무 처리 문제에 대한 학생들과 동문들의 **우려** ㉢
- 4문단: 소나무 기증을 통한 소나무 처리 문제의 **해결** ㉣
- 5문단: 기증한 소나무들로 숲숲을 조성하게 된 **계기** ㉤
- 6문단: 소나무 기증의 의의와 숲숲에 거는 **기대**

○ 기사 초고

우리 학교의 역사적 상징물, 시민의 숲숲으로 부활

<부제>

[2017학년도 6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평가]

이 역시 마찬가지로 매년 출제되는 유형이다.

‘작문’은 자료에 대한 해석, 즉 ‘작문계획’에 따라 글쓰기가 제대로 되고 있지만 점검하면 된다.

작문 문제는 2문제 / 3문제로 분할되어 두 지문이 출제되는데, 두 지문 모두 완성되지 못한
지문들이다. 따라서 철저하게 ‘계획’에 따라 지문을 읽으면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야한다.

작문계획에 제시된 내용들 중, 핵심을 체크한 후 아래의 완성되지 못한 글(초고)을 읽어나가면서
부지런히 계획과 견주어 파악해야 한다.

화법과 작문은 정확도만큼이나 ‘**속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지런히 눈을 움직여야 한다.**

* 아까 했던 **단어 공부** 다시 한 번 해보자

이처럼 우리 학교 이름을 딴 미리내 숲숲의 조성은 교내의
소나무 처리 문제가 지역 사회와의 협조를 통해 슬기롭게
㉣ **해결되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학생회장은 “학생들은

6문단: 소나무 기증의 **의의**와 숲숲에 거는 기대

[2017학년도 6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평가]

→ ‘**의의**’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지문이 손쉽게 이해가 된다.

학생회장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 **인용, 예시, 조사·실험 결과, 통계자료(숫자)**를 사용하면

㉠ 독자들의 글·말에 대한 **이해도·신뢰도를 높인다** ㉡ 화자·글쓴이의 말에 **근거(부연·상술)**로 쓰인다

10. 기사 초고의 ㉠~㉢에 대한 점검 결과와 수정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점검 결과	수정 방안
①	㉠: 행위의 시간 표현이 잘못되었다.	'참석할 예정이다'로 수정한다.
②	㉡: 의미상 불필요한 표현이다.	의미 중복을 피하기 위해 삭제한다.
③	㉢: 문장에서 행위의 주체가 드러나 있지 않다.	'시민 공원은'을 주어로 추가한다.
④	㉣: 부사의 사용이 부적절하다.	'때마침'으로 수정한다.
⑤	㉤: 피동 표현이 불필요하게 중복되고 있다.	'해결되었다는'으로 수정한다.

[2017학년도 6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평가]

사실 작문에서 빠질 수 없는 문제가 바로 '고쳐 쓰기' 문제다. 그동안 정말 끊임없이 출제 됐고 올해 9월 모의평가, 수능까지도 출제될 것이 100% 예상되는 유형이다.

기출문제에 대한 적응도가 높은 학생들은 지문을 읽으면서, 바로바로 틀린 부분을 잡아낼 수 있다.
 → 안 되면 문제에서 올라와도 상관없다.
 → 접속사, 문장성분, 주술호응 등은 '대입' 해보면서 푸는 게 가장 좋다

간혹 '문단, 문장의 위치를 바꾸는 선택지'가 출제되기도 하는데 그 선택지는 잠깐 stay 시켜놓고, 다른 선택지부터 해결하길 권한다.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③ ㉢: 글의 흐름을 고려하여 바로 앞의 문장과 순서를 바꾸는 것이 좋겠어.

[2016학년도 6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평가 : 국어A]

개정교과 이전부터 지금까지, 평가원에서 꾸준히 주목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의성 ≠ 의미 중복 2) 이중 피동 (3) 부정 극성의 부사어)

1) '중의성 ≠ 의미 중복'

2014학년도 5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예비시행 : 국어B 13번
2014학년도 9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평가 : 국어B 15번
2015학년도 6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평가 : 국어B 12번
2016학년도 3월 서울시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 : 국어A 8번
2016학년도 3월 서울시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 : 국어B 13번
2016학년도 6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평가 : 국어A 14번

2017학년도 3월 서울시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 8번
2017학년도 4월 경기도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 10번
2017학년도 7월 인천시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 8번

개정교과 이후 출제된 문제들만 해도 이 정도다.

이번 기회에 **중의성**과 **의미중복**에 대한 개념과 해소방법을 학습해두자.

우선 '중의성'은 '해석이 2가지 이상으로 되는 것'을 말하고 (문장 차원)
'의미중복'은 '동일한 의미를 가진 단어가 반복되는, 즉 동어반복'을 의미한다. (단어 차원)

교과서에 제시된, **중의성**을 해소하는 방법은 세 가지다.

① 단어 추가 ② 어순 변경 ③ **쉽표 찍기** (: 평가원은 3번을 통해 해소하는 걸 원한다)

가령 '아버지의 사진'이라는 문장을 보면

이것이 '아버지 소유의 사진' 또는 '아버지가 등장하는 사진'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말한 것처럼, '소유의' 또는 '등장하는'처럼 **단어를 추가해서** 중의성을 **해소**할 수 있다.

이런 예를 들어보자

초성민을 좋아하는 찬우의 개가 죽었다. (너무 극단적인가...)

수능에 자주 출제되는 '중의적 문장' 구조다.
여기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중의적 해석이 가능하다.

초성민을 좋아하는 것이 '**찬우**'인지, '**개**'인지가 불분명한 것.
→ 느꼈겠지만 주로 **관형어의 수식과 관련**해서 '중의성'이 발생한다.

어순을 변경하는 방법 외에 '**쉽표**'를 통해 중의성을 해소해보자. (초성민 선생님 죄송합니다)

① 초성민을 좋아하는게 '**찬우**'일 경우
→ 초성민을 좋아하는 찬우**의** 개가 죽었다. ('찬우의' 뒤에 찍혔다)

② 초성민을 좋아하는게 '개'일 경우

→ 초성민을 좋아하는 찬우의 개가 죽었다. ('좋아하는' 뒤에 찍혔다)

③ 그런데 만약 쉽표가 '개가' 뒤에 찍힌다면?

→ 초성민을 좋아하는 찬우의 개가 죽었다.

이 경우에는 중의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즉, 쉽표의 위치가 틀렸다.

→ [2015학년도 6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평가 : 국어B 12번]

쉽표를 찍어주는 이유는 독자로 하여금 '독해, 낭독의 호흡을 조절'하기 위함인데 중의성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는 '수식관계'를 구분 짓는 목적으로 쓰인다.

③ 회전 속도가 감소하고 있는, 형태가 일정한 물체에는 돌림힘이 작용한다.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국어A]

평가원에서도 해석의 중의성이 발생하면, 위와 같이 '쉽표'를 통해 중의성을 해소하고 있다.

→ 평가원이 상당히 꼼꼼하게 문제를 만들고 있다는 방증이다.

* '해소'라는 표현을 사용하려면 '기존의 것'이 '사라져야'한다.

'기존의 것'이 존재하지 않았거나, '사라지지 않았다'면 '해소'라는 표현을 쓰면 안된다.

* '완화'는 '기존의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 '그 정도가 덜해지거나 약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의미중복'은 무엇인가?

> 조금 더 관심 있는 학생은 노명희 선생의 '국어 동의중복 현상(노명희,2009)'을 참조할 것.

의미중복은 같은 의미의 '단어'가 반복되는 것을 말한다.

가령 교과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시는 '역전앞', '동해바다' 등이다.

주지하고 있듯, '전 = 앞', '해 = 바다' 로 같은 의미의 단어가 연달아 쓰였다.

국어에서는 동어반복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의미 중복현상은 비문이다.

체육 활동을 위해 체육관을 ㉠ 새로 신축하기로 결정하였다.

[2017학년도 6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평가]

의미중복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문제 보기 전에 지문에서 바로바로 해결하도록 한다.

> '새로 = 신(新)' 이므로 의미중복이 발생하였다.

㉔ 불필요하게 의미가 중복되는 경우 등이 있다.

㉕ ㉔ : 착한 너의 후배를 나한테 빨리 소개해 주었으면 좋겠다.

[2016학년도 3월 서울시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 : 국어B 13번]

㉔에서는 '의미중복'을 묻고 있는데, ㉕번에서는 '중의성'을 띤 문장을 제시했다.

→ 아직도 '중의성 = 의미중복'으로 알고 있는 자들에게 경종의 메시지를 던진다.

2) 이중피동

2014학년도 6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평가 : 국어A 10번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국어A 10번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국어A 8번

2016학년도 9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평가 : 국어A 14번

2017학년도 3월 서울시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 15번

2017학년도 6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평가 10번

2017학년도 7월 인천시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 8번

패턴이 정해져있다. 94학년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의 수능을 보면 '이중피동'이라는 용어대신, '어색한 번역투'라는 표현을 사용했었다.

즉 '수동태 문장'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표준어가 아닌 비문이 나온다는 것.

평가원에서 사용한 표현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어색한 번역투 = 이중 피동 = 피동 표현이 과하다

평가원에서 그동안 물어온 것은

'되다' 와 '-어지다'가 결합한 '되어지다'라는 표현이다.

'되어지다'라는 표현은 피동이 두 번 반복된, 즉 과하게 피동이 쓰인 표현이라 비문이다.

해소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되다' 와 '-어지다' 중 하나만 사용하면 된다.

* 무라카미 하루키가 최근 '번역 투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다.

→ <http://news1.kr/articles/?2682543>

심심하신 분들만 읽어보세요.

3) 부정극성의 부사어

‘부정극성’이라는 단어는 사실 교과서 용어가 아니라 국어학계 용어다.
하지만 이 단어가 가장 적합할 것 같아서 사용한다.

의미는 간단하다. 부사어 뒤에 부정문이 오는, 즉 ‘부사어 + 부정문’의 형태를 띠는 부사어다.

지금은 국어원에서 인정했지만, 과거에는 ‘정말’과 ‘너무’를 구분해서 사용하였다.
정말 + 긍정문 / 너무 + 부정문 (‘정말’은 긍정극성의, ‘너무’는 부정극성의 부사어였다)

그래서 ‘정말 좋다’는 옳은 문장이었지만, ‘너무 좋다’는 틀린 문장이었다.

하지만 2015년 6월 22일 국어원 고시에 따라, ‘너무’가 긍정·부정극성 모두에 사용됨으로 수정됐다.

<p>너무</p>	<p>일정한 정도나 <u>한계에 지나치게</u>, 너무 크다/너무 늦다/너무 먹다/ 너무 어렵다/너무 위험하다/너무 조용하다/너무 멀다/너무 가깝다/ 너무 많다/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너를 그동안 너무 몰라라 한 것도 사실이다.<최일남, 거룩한 웅달></p>	<p>일정한 정도나 <u>한계를 훨씬 넘어</u> 선 상태로, 너무 크다/너무 늦다/ 너무 어렵다/너무 위험하다/너무 조용하다/너무 멀다/너무 좋다/너 무 예쁘다/너무 반갑다/너무 걱정 하지 마세요./내가 너를 그동안 너 무 몰라라 한 것도 사실이다.<최 일남, 거룩한 웅달></p>	<p>뜻풀이 수정</p>
-----------	--	--	-------------------

[2015년 6월 22일, 국립국어원 : 어문규범실]

이처럼 단순한 부사어 하나도 긍정과 부정의 성질을 따지는 게 한국어다.
그간 평가원에 출제됐던 부정극성 부사어들의 대표만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비단, 차마, 결코 + 부정문’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화자라면, 따로 학습하지 않아도 충분히 문장과 문맥을 통해 파악 가능하다.
외국에 오래 살아서 이 부분이 힘든 수험생은 관련된 문제를 자주 찾아보면서 연습하도록 한다.
→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낯선 것에 익숙해지는 게 우선이다.

를 기증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④ 비단 시민 공회에서도
술숯을 조성할 소나무가 필요하다며 소나무 기증 의사를 밝혔고

[2017학년도 6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평가]

6월에서 출제된 지문을 봐도 '비단(부정극성의 부사어)' 뒤에 '긍정문'이 오고 있기 때문에
부사어를 수정해줘야 옳은 문장이 되겠다.

→ 한국인 특유의 '감'으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

다만 '작문'만을 위해서 이 단어를 알아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부정극성'의 부사어는 종종 문학 작품에서도 활용된다.

지문 독해가 가장 중요한 국어영역에서

'부정극성의 부사어'가 사용된 문장을 어떻게 독해해야 하는지 확인해보도록 하자.

— 그 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리아.

[200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정지용 「향수」

사실 「향수」는 국어 I 교과서에서 모두 배우는 작품이다. '참하'가 '차마'라는 것을 다 알 것이다.
어떻게 지문을 읽어야 할 것인가?

우선 '설의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설의법'은 '의문을 던짐으로써 화자의 뜻을 강조'하는 수사법이다.

→ '설의법'을 쓰는 이유는 질문을 통해 독자에게 생각·판단을 할 여지를 주는 것이다.

즉 대답을 요구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는 뜻'이다.

[설의법의 예시]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200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신경림 「가난한 사랑노래」]

'화자'가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가?

'가난해도(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로움을 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다.

돌아가보자.

차마 꿈엔들 잊히겠니 → 차마 꿈에서도 잊혀지지 않는다(강조)

'차마'라는 표현을 통해 한 번 더 '강조'의 의미를 더하면서

화자는 절대절대 고향이, (꿈에서도) 잊혀지지 않음을 강조한다.

즉 문맥을 더 보면 알겠지만, '화자'에게 '고향'은 긍정의 공간(이상적 세계, 공간)이다.

그리운 곳 차마 그리운 곳

[200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용악 「그리움」]

사실 여기부터 좀 어렵다. '차마' 뒤에는 분명 '부정문'이 와야 하는데, 긍정문이 와있다.

시에 대한 학습이 어느 정도 된 학생이라면 '시적허용'이라고 외칠 것이다.

> 시적허용에 대한 학습은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정지용 「인동차」를 참조할 것.

그렇다면 내가 부정문으로 만들어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운 곳, 차마 (있을 수 없어) 그리운 곳

이렇게 해석한다면 '그리운 곳'의 반복과 함께(강조의 기능)

'차마'를 통한 '강조'의 의미가 한 번 더 더해지면서

'화자'에게 '그곳'은 정말 그리운 공간, 즉 긍정적인 공간으로 인식됨을 확인할 수 있다.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한용운 「님의 침묵」]

2002학년도 수능에서 한번 연습을 해봤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독해라고 생각된다.

역시 '차마' 뒤에 긍정문이 와있는 경우다.(내용이 아니라 형식을 얘기하는 것이다)

중간에 무엇인가 생략된 '부정문'이 있다고 가정하고 독해를 해 나가도록 한다.

차마 (떨치고 가면 안 되는데) 떨치고 갔습니다.

'차마'를 사용함으로써 '님'이 떠났음을 (이별의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자 이처럼, 우리가 화법, 작문, 문법 등등을 공부하는 것은 사실 '독해'를 잘하기 위함이다.

배우는 내용이 단순히 그 영역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닌, '독해'를 위한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자.

모든 산맥들이 / 바다를 연모(戀慕)해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犯)하던 못하였으리라.

[2003학년도 3월 서울시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 이육사 「광야」]

'차마'라는 표현과 '-리(의지를 드러내는 어미)'를 통해 '광야의 신성성'을 강조하고 있군요!

예) 살 빠리! → 살을 빼겠다는 의지를 피력합니다.

* '이육사'의 시에 자주 등장하는 '(주체의 의향·의지를 드러내는) 선어말어미'입니다.

인간과 세계에 대한 폭 넓고 깊은 이해

국어영역 강사 '심찬우'